상무부:

미 AI 수출 통제 조치 발표 반대

13일,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정부가 13일에 인공지능(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미국 첨단기술 기업, 업계 기구 등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바이든정부에 불만과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론의 없이 성급하게 제정 발표된 해당 조치가 AI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중대하게 불리한 후과를 낳을 것이라며 발표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든정부는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는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를 람용한 또 다른 사례이자 국제 다자간 경제무역 규칙을 공공연히 위반한 것으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바이든정부가 수출 통제 조치를 람용해 각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왕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의 리익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신화넷

중국, '일대일로' 국가 수출입 비중 50%

2024년, 중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대 '일대일로' 국가의 비중이 사상 첫 50%를 돌파했다.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 왕령준은 13일 열린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2024년 중국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 대한 합계 수출입액이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의 전체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웃돌았다.

그중 중국과 아시안간 수출입은 전년 대비 9% 확대돼 9년 련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로써 중국과 아시안은 5년 련속 상호간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한편 중국의 다국간 전자상거래 성장세도 돋보였다.

해관총서 통계분석사(司) 사장 려대량은 잠정 통계 결과 2024년 중국의 다국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2조 6,3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고 전했다.

/ 신화넷

한국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15일, 한국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장을 집행했다. / 신화넷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 국제방송

헌법재판소: 계엄포고령 헌법에 불부합

14일, 경찰이 서울에 있는 한국 헌법재판소 앞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 신화넷

9일, 한국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은 '12.3' 비상계엄 때 공포된 계엄포고령은 한국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원은 이날 한국 국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받을 때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 뉴시스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원은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가 제기한 '계엄포고령 1호 1항 합헌 여부' 문제에 대해 "합헌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에 따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엄령 4, 5항에 대해서도 김정원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립장을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는 1호 계엄포고령을 발포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안을 심리중이다.

/ 신화넷

[국제관찰]

한국 정국 불안으로 경제 하방 위험 심화

한국 계엄 풍파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피폐해진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국 매체 《조선경제》가 최근 한국 경제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80%가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했다.

9일,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서울 거리를 거닐고 있다. / 신화넷

2024년 이후 한국 경제는 국내 생산, 소비 및 투자가 모두 하강하는 침체 조짐이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0월, 한국의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 0.3%,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4%, 기업의 설비 투자가 전달 대비 5.8% 하강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데 따르면 2024년 12월 종합기업신뢰지수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5년의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각측의 우려도 적지 않다. 2024년말,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절하고 2026년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통화팽창이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한 높은 물가, 부충분한 소득 개선 및 물가 변동 위험 등과 같은 요인은 가정의 실제 구매력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이어지는 계엄 풍파로 정국 불안이 심화되어 금융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금융 시장에 거대한 진동을 일으켰다. 4일, 외화 시장에서 한화 대 딸라 환률은 급락해 한화 1,446원이 1딸라로까지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13개 거래일 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발빠르게 빠져나가며 3조원 넘게 순매도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이후 한화 대 딸라 환률은 15년 만에 최저치인 1,487원까지 떨어졌다. 시장은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한화 환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전문가들은 환률 급락은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에 의뢰하는 한국 경제에 엄중한 타격을 조성할 것이고 딸라 강세는 기업의 원자재 비용과 딸라로 가늠하는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며 수입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경제 압력을 증가시켜 소비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KB증권 조사본부 부장 김강훈은 한국 정치계에는 2004년과 2016년에 탄핵 위기가 나타나 당시 금융시장이 모두 영향을 받아 큰 변동이 일어났으며 경제에 불리한 영향까지 미쳤다고 밝혔다. 오직 정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경제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 비즈니스》 월간 기사에 따르면 계엄령 풍파로 인한 탄핵 위기가 국제 투자 위험을 증가시켰고 더구나 2025년 정부 예산이 한화 4만조 이상 삭감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이 영향받아 한국 반도체 등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새로 출범될 미국정부는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줄 것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형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은 그때에 가면 한국의 수출이 피면할 수 없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딸라 대 한화 환률 상승은 한국 국내 물가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기본면이 매우 취약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국정부의 관세 추가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정국 불안정은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매체는 국제신용평가기구 무디의 보고를 인용하여 한국의 정국 불안정이 조속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중요한 립법 통과 혹은 여러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어 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실체경제와 금융 부문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미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계도 단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치 불안정이 경제와 민생을 절대 파괴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계에서 신속하게 행동하여 계엄령 풍파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화넷

설명절 경축활동 나고야에 뿌리 깊이 내려

일본 대중 다 함께 음력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1일, 일본 나고야시에서 중경 량강예술단 배우들이 제19회 '나고야 중국 음력설제' 축하연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 신화넷

11일, '나고야 중국 음력설제' 활동현장의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장. / 신화넷

"음력설 맞이 행사는 이미 나고야(名古屋)의 새해맞이 행사 이후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였고 나고야에 뿌리를 깊이 내렸다."

제19회 '나고야 중국 음력설제' 축하연회 행사에서 일본 아이치(爱知)현 나고야시 시장 히로사와 이치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고야 음력설 맞이 행사장으로 발길을 돌려 중국의 풍성한 설맞을 음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나고야 중국 음력설제'는 일본의 규모가 제일 큰 음력설 맞이 행사중 하나이다. 13일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연인수로 21만명 이상이 참석했다.

중경 량강예술단과 신강 카스지구 가무극단의 일본 공연은 이번 나고야 음력설 활동의 하이라이트였다. 중경 량강예술단에서 선보인 무용 〈리원소춘〉(梨园闹春)은 배우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많은 어린이들은 보면서 흉내를 내기도 했고 언론인들은 현장에 '길고 짧은 카메라'를 내들었다. 매체 인사들과 관객들은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무대우를 향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번 공연은 음력설이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후 중경 량강예술단의 첫 해외공연이다." 중경 량강예술단 부단장 제흔은 "음력설은 중국문화의 중요한 담체이다. 전세계 국민들은 음력설 행사를 통해 중국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자신감을 감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의 사랑을 조국 어머니께〉, 〈그대 면사포를 걷어올리며〉, 칼춤… 신강 카스지구 가무극단 공연진들의 열정적이고 분방한 가무공연을 보고 나서 나고야 시민 히라마츠 카즈로는 "신강 무용은 너무 훌륭하고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강 카스지구 가무극단 사회자 장래는 이번 일본 공연은 신강의 전통 특색을 살린 프로들로 중국 음력설의 랑만과 즐거움을 일본 대중들에게 선사한 동시에 넓고 깊은 중국 문화와 열정적이고 분방한 신강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약 50개의 부스가 설치되였다. 그중 음식부스 수가 가장 많았다. 양꼬치, 마라탕, 찐만두, 칼국수, 탕후루 등 여러가지 중국 특색이 넘치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여 남녀로소 모두에게 '군침이 도는' 곳으로 다가왔다. "나고야에는 중국 음식이 보편화되여 있어 시민들은 어디서든지 중국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히로사와는 대중들이 음력설 행사를 통해 중국 음식을 더 많이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고야 주재 중국 총령사 양현은 축하연회 축사에서 음력설은 중화문명의 리념을 계승하고 가정의 화목, 사회적 포용,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등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력설은 유엔 법정휴일로서 202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였다며 일본 친구들이 다 함께 중국의 음력설 풍속과 문화를 체험하고 '봄날'을 맞이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기원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이치현에는 수만명의 화교와 중국인들이 모여산다. 이 현의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서 무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지방 우호 도시들과 교류를 진일보 심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신화넷